

김미곤 대장 낭가파르밧 등정...히말라야 8천m급 14좌 완등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출신 첫 산악 그랜드슬램

■김미곤 대장 히말라야 14좌 등정 일시

- 2000년 초오유(8201m) 등정
- 2001년 마칼루(8463m) 등정
- 2006년 가셔브롬Ⅱ봉(8035m) 등정
- 2007년 에베레스트(8848m) 로체(8516m) 연속 등정
- 2009년 다울라기리(8167m) 등정
- 2011년 마나슬루(8163m) 시사팡마(8027m) 등정
- 2012년 K2(8611m) 등정
- 2013년 가셔브롬Ⅰ봉(8068m) 등정
- 2014년 칸첸중카(8586m) 브로드피크(8047m) 등정
- 2016년 안나푸르나(8091m) 등정
- 2018년 낭가파르밧(8125m) 등정

광주 지역 중견 산악인 김미곤(46·한국도로공사 산악팀·서영대OB) 대장이 ‘산중의 왕’ 낭가파르밧(8125m) 등정에 성공해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이라는 쾌거를 이뤄 냈다.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산악 그랜드슬래머(Grand-slammer)’가 탄생한 것이다.

‘2018 낭가파르밧 아시아 평화원정대’에 따르면 김 대장은 지난 9일 오전 8시 21분(한국시간 낮 12시 21분) 낭가파르밧 정상에 밟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등반을 함께 해 온 대만의 루창한(35·Lu Chang han) 대원과 네팔의 사누 셰르파(Sanu Sherpa)도 함께 정상에 올라 아시아 산악인 교류와 평화 기원이라는 원정대의 취지를 오롯이 살렸다.

김 대장 일행이 정상에 선 것은 지난 8일 오후 7시 해발 7400m의 제4캠프를 출발한 지 13시간 여 만이었다. 보기 드물게 쾌청한 날씨도 이들의 등반을 도왔다. 대원들은 이후 빠른 속도로 하산을 시작해 등정 당일인 9일 밤 10시께 베이스캠프까지 무사히 귀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출국한 원정대는 이틀간의 카라반을 거쳐 낭가파르밧 해발 4200m 지점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등반을 시작했다. 세미 알파인 스타일로 서벽 킨스 호퍼 루트를 따라 제1캠프(4800m)와 제2캠프(6000m)를 차례로 구축하고 지난달 23일에는 제3캠프(6600m)를 넘어 해발 7000m까지 진출한 뒤 하산했다. 이후 폭설과 악천후로 고전하다 지난 6일 날씨가 맑아지자 베이스캠프를 떠나 정상 공략에 나섰다.

지난 2000년 초오유(8201m) 정상에 오르며 히말라야 14좌 레이스에 시동을 건 김 대장은 이날 등정으로 18년 만에 완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는 세계에서 마



지난 9일 낭가파르밧 등정에 성공한 김미곤 대장이 정상에 서서 환호하고 있다.

흔 번째, 한국에선 지난 2000년 엄홍길 대장을 시발로 고 박영석, 한왕룡, 오은선, 김재수, 김창호에 이어 일곱 번째 대기록이다. 호남에서는 전북 군산 출신의 한왕룡, 남원 출신의 오은선에 이어 세 번

얻었으며 지난 2015년에는 대한민국 산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철없이 패기만 넘치던 20대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히말라야에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 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응원해준 지역민과 산악계 선후배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러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등산학교와 국제 산악인 교류 활동, 아직까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세계 미답봉 개척 등 진정한 알피니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김 대장은 지난 2016년 낭가파르밧에 도전했지만 일찍 찾아온 우기와 이로 인한 낙석 등으로 안타깝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지역 출신인 윤옥현(G1클라이밍센터·43), 이경주(41·한국도로공사 탐험지사) 대원이 포함된 원정대는 오는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후창식 기자 who@kwangju.co.kr



온라인 뉴스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디지털 저널리즘 복원 특별위원회’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최우석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정인숙 한국언론인권센터 이사, 이하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정승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회, 정승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 양승목 특위 위원장, 이동현 한국신문협회 이사, 진세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

‘디지털저널리즘 복원 특별위원회’ 출범 이용자 정보복지 제고 방안 마련...학계·언론계 등 참여

온라인 뉴스 유통 정상화를 통한 이용자 정보복지 제고 및 저널리즘 가치의 복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시민단체·언론계가 참여하는 ‘디지털 저널리즘 복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했다.

특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전 한국언론학회 회장)가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 임됐다. 위원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정인숙 언론인권센터 이사(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동현 한국신문협회 이사(경향신문 발행인), 이하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중앙일보 주필), 최우석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조선일보 미래기획부 에디터), 정승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회가 참여한다. 간사는 진세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이 맡는다.

특위는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특위는 향후 검토 과제로 ▲ 온라인 뉴스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이용자 정보복지 제고 ▲저널리즘 가치의 복원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화 타당성 검토 ▲언론과 포털 간 윈-윈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채택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

올해 을지연습 안한다

정부, 민·관·군 합동 ‘을지태극연습’ 개발

정부가 국가 전시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최대 규모 훈련인 을지연습을 올해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전시 훈련을 자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 및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계획된 정부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내년부터 실시될 을지태극연습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뿐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민·관·군 합동 훈련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미 연합훈련 중단으로 1400만달러 절약”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밝힌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에 따라 미국이 아전 비용은 1400만 달러(약 156억 원) 가량이라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스위크지에 따르면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이 확인해 준 추정치에서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을지프리엄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으로 약

14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매우 도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서도 “워게임(war game)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산촌 진흥 10개년 계획 수립 760억 들여 4대 전략 16개 과제 추진

전남도가 낮은 소득, 인구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촌진흥 10개년 계획(2018~2027)을 확정, 시행한다.

10일 전남도가 발표한 산촌진흥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산촌의 경관자원 개발, 청정임산물 고부가가치화, 산촌관광 자원관리, 산촌리더 양성과 마을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매력있는 산촌’, ‘융복합의 산촌’, ‘체험휴양 산촌’, ‘상생발전 산촌’ 등 4개 전략,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소요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 760억 원이다.

산촌은 ‘산림기본법’에서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106명/k㎡) 이하, 경지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19.7%) 이하인 곳으로 정하고 있다.

전남지역 산촌은 17개 시·군 53개 읍면 540개 마을로 이뤄졌다. 면적은 31만ha로 전남 전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1곳을 제외한 52개 면이 30년 내 소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해 전국 466개 산촌을 대상으로 소멸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전남은 53곳 중 52곳이 30년 이내 소멸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고위험(0.2 미만)이 2곳, 소멸위험진입(0.2 이상~0.5 미만) 50곳이다. 나머지 1곳은 소멸주의(0.5 이상~1.0 미만) 단계이다. 정상 단계(1.0 이상)는 1곳도 없었다.

이는 지난 2000년 51곳이 정상 단계였는데, 16년 사이에 정상은 1곳도 남지않았고 52곳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전남도는 기존의 산촌 개발사업이 생활환경 개선 등 기반 조성에 집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산림휴양과 치유 등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한 산촌마을 조성으로 산촌 거점권역을 육성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촌경관을 조성한다.

또 주민소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촌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임야·삽니다

당일매입가능, 김태산. 010-9374-8585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사추학의 대가 동광스님비법공개

40년 내공으로 완성한
사추학 비법을 공개합니다

- 사추역학 학당 개설 -

- 일시: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6시
- 장소: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 2층 (일월사 포교원)
- 대상: 사추학, 역학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학당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사추학의 비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062) 524-8020
원 장 010-8024-1433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텃밭(10평)있음
- 시세 - ~~1억1000만원~~ 사정상 싸게 팝니다.
- 일시불 8400만원

H. 010-6834-7400